

브랜드 광고가 정보가 된다!

브랜드 광고가 스페셜리스트가 된다!

브랜드 스토리가 드라마가 된다!

Tre^oTVision

the essential Singles **marie claire** *Maison*
마케팅 marie claire

이경민, 김청경, 이희, 김선진, 김활란, 제니 하우스, 라 뷰티코아, W 퓨리티 등
국내 톱 메이크업 아티스트 & 톱 헤어 디자이너
럭셔리 뷰티 살롱

41개 살롱 / 406대 모니터



뷰티 살롱도 기다렸던 트레비전

“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매체였습니다.”

- 현태(라뷰티코아 대표)

“살롱 안에서 새로운 형식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.
망설임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”

- 이경민(이경민 포레 원장 & 비디비치 대표)

“평소 좋아하는 마리끌레르, 싱글즈, 메종의 동영상 잡지라서
더욱 기대했고,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”

- 김현숙(제니하우스 원장)

“잡지를 오래 보다 보면 눈도 피로해지고 목도 아파요.
그런 시점에서 트레비전이라는 매체는 새로운 트렌드와
다양한 색감을 보여 줬는데 정말 획기적이고 최고였어요.”

- 김선진(플로에 원장)

트레비전은
맞춤형
트렌드 서비스

고객도 만족한 트레비전

“기다리던 시간이 즐거워졌어요. 최고의 매체예요.” -h# 고객 한유진(28세)

“TV에서 보던 기존 광고와는 느낌이 확 다른데요.” -라뷰티코아 고객 김소영(33세)

“눈에 띄는데요! 멋져요.” -드엘 고객 엄상윤(27세)

“광고 영상이 너무 예뻐서 눈에 쏙 들어와요.” -포레스타 고객 정지윤(27세)

“제품을 정말 예쁘게 보여주네요. 사고 싶어져요.” -제니하우스 고객 이현정(25세)

“사실 잡지 보기가 좀 불편했어요.
트레비전은 훨씬 보기 편해요.” -라뷰티코아 고객 김수영(43세)

트레비전은
유익한
킬링 타임용
미디어

트레비전은 특별한 미디어 서비스

LUXURY
BEAUTY
SALON



트레비전은 특별한 미디어



보기 편하다

심심하지 않다

눈이 즐겁다



트레비전은 특별한 미디어



트렌드가
살아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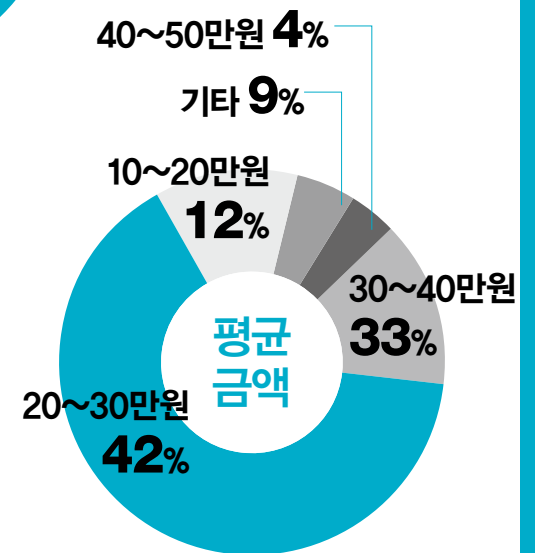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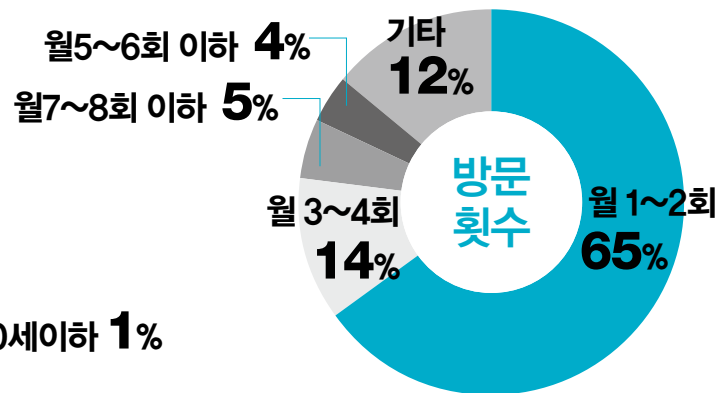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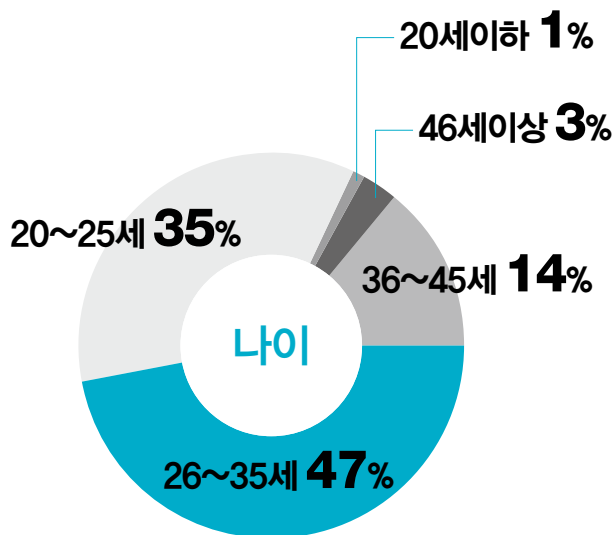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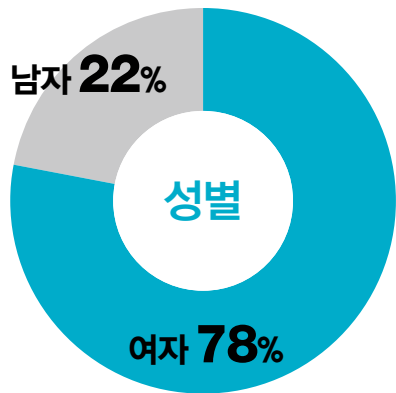
스타의 변신이
재미있다

브랜드 정보라저
유익하다



트레비전은 특별한 서비스 - 월 방문 고객 302,198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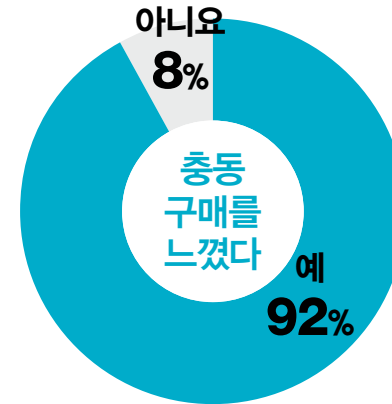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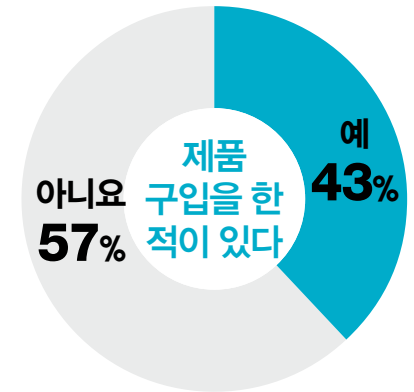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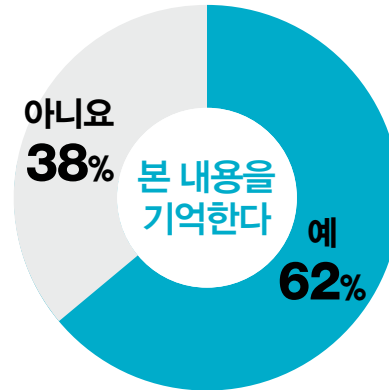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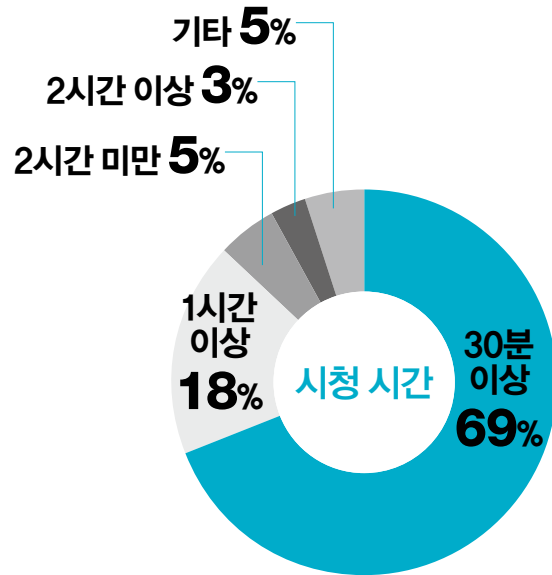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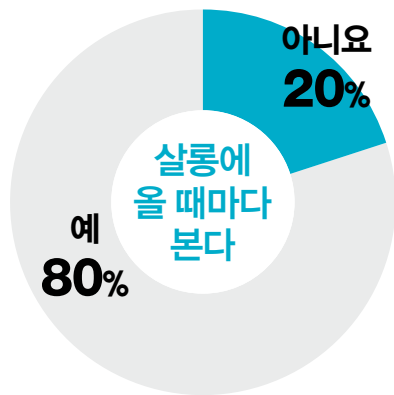
- ☑ 여성이 압도적
- ☑ 82%가 20~30대 여성 고객
- ☑ 월 1~2회 방문자 65%
- ☑ 1회 방문시 평균 20~30만원 소비



SOURCE | 1028명 설문조사 결과, 39개 매장, 조사 기간(2010년12월 ~2011년 2월 28일까지)

트레비전의 뛰어난 주목도

- ☑ 고객 80% 이상이 본다
- ☑ 87%가 최소 45분은 집중한다
- ☑ 62%가 트레비전 내용을 기억한다
- ☑ 92%가 구매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
- ☑ 43%가 제품 구입을 한 적이 있다



SOURCE | 1028명 설문조사 결과, 39개 매장, 조사 기간(2010년12월 ~2011년 2월 28일까지)

트레비전의 광고 효과

☑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고객

트레비전 광고는 흥미롭다

매우 흥미롭다 & 흥미롭다 67%

광고와 잡지 내용을 구분한다

잘 모르겠다 53%

가장 인상적인 내용은?

스타 39%

광고 25%

뷰티 18%

패션 12%

기타 6%

SOURCE | 1028명 설문조사 결과, 39개 매장, 조사 기간(2010년12월 ~2011년 2월 28일까지)

☑ REACH +1만으로 REACH +3, +4 효과

브랜드 뿐만 아니라 제품명까지 기억하는 고객들

브랜드의 정보와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재미있다!

TV나 케이블로 보던 광고도 왠지 신선해

SOURCE | 64명의 즉석 인터뷰 중



트레비전은
모든 브랜드의
정보채널

브랜드도 반겼던 트레비전

“제가 가는 살롱에서 트레비전을 직접 경험했다. 집중도도 높고, 살롱 고객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바로 광고를 시작했다.” -김주현(커밍스텝 홍보팀장)

“백화점 브랜드 동영상을 트레비전에 동시에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다. ONE SOURCE -MULTI USE 케이스로 타겟의 노출율이 훨씬 높아졌고, 매장의 반응도가 더 좋아졌다.” -김잔디(슈에무라 홍보팀 차장)

“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새로운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했다. 트레비전은 우리 브랜드의 니즈와 잘 부합하는 미디어이다.” -박소희(키엘 마케팅팀 과장)

“트레비전에서 제작해준 영상을 ONE SOURCE -MULTI USE로 사용, 면세점 등에 광고로 활용했고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다.” -김수현(해밀턴 브랜드 매니저)

“코-타겟에게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어 더 좋았다. 제품을 보여주고, 시향할 수 있고, 시술을 받으면서 제품의 영상까지 접할 수 있어 정말 좋은 툴이었다고 생각한다.” - 이현정(플로에 향수 홍보 팀장)

트레비전 매체 현황

☑ 1일 총 방영시간 → 10:00~20:00 (10시간/600분/36000초)

☑ 30초 광고 1일 기준 노출 자료

<u>1 Monitor</u>	Total	36,000초
	광고 sec	30초
	노출 횟수	30회
	Total 광고 (sec)	900초

<u>Total Monitor (406개 Monitor)</u>	광고 sec	900초 X 406 = 365,400초
	노출횟수	30회 X 406 = 12,180회
	Total 노출횟수	12,180회
	Total 광고 (min)	6,090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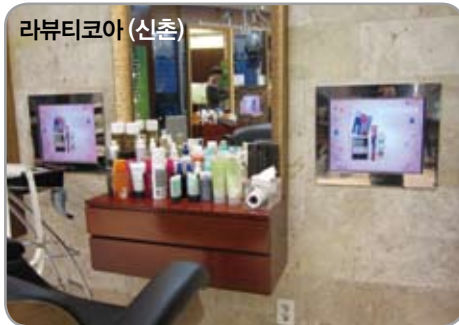
(VAT별도/30" 소재 기준/제작비별도)

<u>광고단가</u>	월간 광고비	7,000,000/구좌
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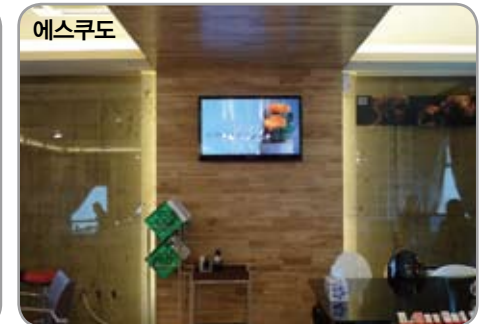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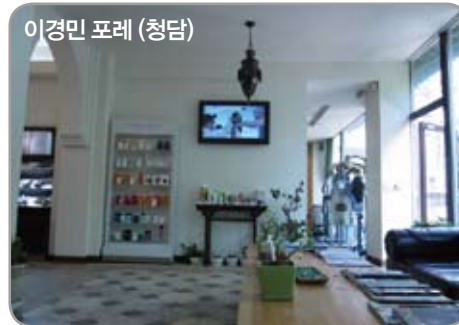
복수구좌 집행가능

연간집행 시 전체 바잉금액 15% D.C

트레비전 노출환경-소형모니터



트레비전 노출환경-대형모니터



살롱 리스트

Total
20개 브랜드
41개 매장
406개 모니터

No	브랜드	지점	모니터 규격-수량
1	포레스타	본점(도산)	42"-01 12"-12
		로데오	42"-03 32"-01 15"-18
2	정현정 파라팜	본점(도산)	42"-02 32"-01 17"-09
		분당	42"-01 32"-01 17"-07
3	라 뷰티코아	청담	42"-01 17"-15
		도곡	15"-07
		도산	32"-04 17"-08
		분당	46"-01 17"-15
		신촌	42"-03 15"-09
		중동	42"-01 17"-12
		일산	42"-4 17"-5 12"-18
4	제니하우스	본점(청담)	15"-01 11"-18
		올리브점	15"-12
		도산점	42"-01 15"-08
5	김청경	헤어페이스(도산)	42"-01 32"-02 26"-02
		퍼포머(청담)	42"-1 32"-2 26"-2 23"-2 20"-4 17"-2
6	김활란 뮤제네프	본점(청담)	32"-03
7	h#	본점(도산)	42"-01 17"-08
8	끌로에	본점(김선진 끌로에)	42"-02 15"-14
		청담(라끌로에)	42"-02 32"-01 20"-01
9	이희 헤어&메이크업	청담점	56"-01 42"-01 32"-01 23"-01
10	드 엘	본점(청담)	42"-03 17"-14
11	W 퓨리피	도산점	42"-02 17"-01 15"-12
12	플로어 엠 by 헤어뉴스	본점(청담)	17"-11
13	라 메종 0809	본점(청담)	17"-14
14	에스 휴	본점(도산)	42"-01 15"-08
15	이지현 에뜨왈	본점(청담)	42"-02 17"-07
16	박승철 헤어스튜디오	본점(청담)	12"-10
17	에스쿠도	본점(청담)	42"-02
18	까라디	도산점	42"-02 32"-01 23"-02 19"-04
		동부이촌점	42"-01 15"-08
19	지수화풍	본점(도산)	10.4"-26
20	이경민 포레	본점(청담)	42"-2
		홍대점	42"-2
		분당정자점	50"-1 32"-1
		신세계 영등포점	42"-1
		센텀시티점	42"-2
		부산점	42"-2
		울산점	42"-2
		일산점	47"-1 17"-7
인천점	42"-1		

브랜드 광고가 정보가 된다!

브랜드 광고가 스페셜리스트가 된다!

브랜드 스토리가 드라마가 된다!

TreVision

CONTACT US

제작 문의 02.3438.2125

서은지 010.5148.1514

광고 문의 02.3438.2154

유병승 010.4399.6209 박현근 011.264.7508